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1월 19일 (셋째 주일/추수감사주일)

성경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설교제목 :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지내며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딤후3:2) 이 말씀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살전5:18)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간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생활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덕목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역올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심신을 이끌고, 선교사역을 이어갑니다. 세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를 동원하여 야손이란 집에 침입하여 바울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어내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로 보내고, 다시 아텐으로 옮겨갑니다. 아텐에 도착한 바울이 큰 궁금증과 염려가 생겨납니다. 황급히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와서, 3주 기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근황이 궁금하고, 또한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디모테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테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범사가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범사에란 의미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성경 NIV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근거가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살전5:18) 영어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God's wil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영어성경대로 번역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뭘니까?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3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골2:6-7)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23편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한 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이 답입니다. **시23: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끝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삶의 결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합3:17**) 한 해동안 내가 원하는 소산을 얻었던, 얻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시50:23**)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는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요11:39**)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 감사하셨습니다.(**요11:41**)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6:11**에 보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가 요한복음 11장의 감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적이 감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죽음과 같은 현실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죽음과 같은 현실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삶에 채워짐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원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